

2017년 3월 31일, 조천읍 신촌리 동동노인정, 강수경 조사.

제보자1: 박원림(남, 1935년생, 조천읍 신촌리)

제보자2: 김봉해(여, 1934년생, 조천읍 신촌리)

- 줄거리: 신촌리 사람이 제주시 삼양동에 할머니 상이 나서 갔다가 집에 소 먹이를 주러 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왔다. 돌송이를 지날 때쯤 파란 치마에 빨간 저고리를 입은 여자를 봤다. 헛게비를 만날까 봐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데 자꾸 뒤에 쫓아오는 느낌이 났다. 그래도 집으로 향하여 신촌리에 도착하였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 하는 느낌이 나면서 '엣기'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정신을 잃어버렸다. 한참 뒤 나중에 일어나보니 마을 골목에 쓰러져 있었다.

**[제보자1]** 우리 외할마님이 저 삼양인다. 외가가 삼양인다. 우리 외할마님이 구십두 술에 돌아가셨주게. 구십두 술에. 참 그때도 뭐뭐 장수랏주. 구십두 술에 돌아가셨이난. 우리 어머니는 백다섯 술까지 살았주만은.

게난 그때 동짓달 초이틀 날인다. 할망 돌아가셨젠 허난 그냥 아버지영 어머니 문딱 가고, 난 이제 집이 출, 소 멕이는 막에 소출 줘도그네, 아니 간 다음에. 간 다음에 내일은 영장혈, 할마님 모시러 영장허레 갈 건디. 아 거 영장, 널 깻정 그디서 밤 잣당 영장허레 가 불문, 그 막에 소 멧 바리 메는 거. 아버지 소영 나 소영 허는 거 출을 줘야 텔 건디. 아 출을 못 주니까 이제 밤중에 완 이제 혼 새로 혼 시쯤. 밤 새로 혼 시쯤 텔 때, 이제 그때 자전거 탄 덩길 때주게. 자전거.

**[제보자2]** 초저녁이 아니우과? 그때.

**[제보자1]** 아니. 밤 열흔시 넘은 때. 겐 삼양서 아 이젠

“집이 강 쉼출 줘 동 오쿠덴.”

헨 허난. 하 그냥 뭐뭐 온 식구가 다 그냥.

“어느 이 밤중에 간, 소 하루 굶어도 죽넨.”

허멍. 아버지영 어머니영 그냥 외삼촌영 그디 앓은 식구덜이 어디 이 밤중에 가느넨. 동짓돌 초이틀 날이나네 돌도 엇고 뭐 전깃불이 잇이카. 게난 신작로에 아스팔트도 안 헨 때고. 다각다각 자갈질인다.

“아 강 오쿠다게. 그 뭐 차도 안 덩기곡 허나네 무슨.”

차 멧 번 덩길 때라게. 아 그 삼양 등 돌런 나완에 돌송이, 돌송이 오니깐이.

돌송이, 돌송이엔 헌디 그 지금 삼양검문소, 조천읍허고 시에 경계선. 그디가 막 도체비, 헛게, 헛게비 난덴 허는 디주게. 그디 잘 넘어덩기렌 허는디. 아 그디, 그디만 조심 행 오단, 글로 이렌 또 신촌더레 오는 딴 자갈질이주만은 자전거 타기가 좋아. 그냥 뭐 멧 발자국 안 노려도 그냥 졸졸졸 내려오니까. 아 내려오는 디 문서에, 진드르 문서엔 헌디 잊지 안 허여. 문서에.

아, 그디 오니깐이 아래 빨간 치마, 아니 아래 파랑헌 치마 입고 우에 빨간 저고리 입고 헤네. 아 여자가 그냥 머리 영 헨 그냥 이만쯤 느린 여자가 탁 윽이 샷단에, 윽이 산, 나 먼 딜로 자전거 영 헤네 앞이 붙은 영 쪼글락헌 불 컨에 탄 오는디, 먼 디서 보니깐이 세프령헌 치메에 빨간 저고리 입은 그 문서 윽이 질엠에 샷어.

그 저 동수동으로 내려오는 저 질 윽이. 물 옆 질 그 윽이 그 담 달아분 에엠에 영 헛어. 버스도 안 다니고 얼른 생각에 아따 젊은 여자가 대단허다이. 밤중에 질레에 와그네 차나 넘어가는 차나 심어지카부덴 왓인가 헤네. 아 그 생각만 헤네. 야 대단허다 대단허다. 속으로만 허멍. 옛날은 그냥 그 밤중에 걸을 때 질레서 누게 불르는 소리나도 뒤돌아보지 말렌 허주게. 뒤돌아 보든 그 헛게비에 미친다고게. (웃음). 그 말은 항상 아바지한테 들어나고 허니깐이, 자전거 탄 오멍 이젠 아멩헤도 이심스러와. 그 밤중에 열두시 넘은 밤중에게.

돌도 엇인 밤에 또 눈에 그냥 싹허그네 흰허게 비치는 그 치마저고리 입은 거 흰허게 보고, 머리영 이만이 허영 느린 것도 봐지고 헨. 아, 이상하다, 이상하다. 자꾸 뒤만, 뒤만 돌아보고정 허여그네. 그 사름이 좇아오는 것만 닮안. 좇아오는 거 닮으난 그냥, 뒤만 돌아보고정 해도 아바지가 절대 돌아보지 말렌 헨 말. 그걸 이젠 생각헛단. 혹시나 이게 헛게 아닌가 헤네. 불미통 완에 이젠 신촌 다 오니깐이 불미통 완 이레 이제 확 돌아오난, 작은 막거리헤네, 사거리헨엔 필생이네 어멍 울담 유희네 담 올라사니깐이 '옛기' 허멍 그냥 뒤에서 막 내뿌리는 소리 나. 게난 '옛기' 허멍 그냥 뒤에서 막 심영 동기는 것같이 헨 그냥 그렇게 헤.

그땐 그냥 정신이 왁왁해 부난. 아, 내중엔 혼 춤 기절헛단에 영 깨난 보니깐이, 자전거 탕 왓는디 자전거도 엇고, 아 어딘지 원 모르크라. 그냥. 아 내중에 혼 춤 행. 아 자전거 탕 작은 막거리?진 온 걸 확실히 알아지는디 그 이상헌 소리에 그냥. 그?정만 이제 알아. 가만히 옆드런에 영 앓안 영 헨. 막 그냥 삼양서 올 때까지영 끝은 말짱헨. 기억허멍, 아 문서에서 만난 게이 혹시나 헛게, 헛게비 아닌가 헨. 경 행, 영 행 멧 발자국 일어산에 작은 막거리 사거리 넘어와시니깐이, 유희네 올레 넘어와시니깐이, 아메도 그냥 그 근처일 것이다 헨. 영 행 정신 출령 멧 발자국 영 헨 동더레, 동더레 뭐 앞더레 걸어보난 연화못정

나오난 유희네 올레게. 게난 그 안네 다래 아방네 올레에 간에 경자네 올레에  
강 자빠졌어게. 자전거도 그 안네 강 잇고.

[청중] 아이고, 그 골목에 들어간양.

[제보자2] 나 잊어불질 안 허여. 얼마 엇인 때주게. 온 거 보건 얼굴에 막 피 낭 왓어.

“무사 경 얼굴에 피났수과?”

허난, 어떤 여즈가 그냥 밀려불엇덴.

[제보자1] 자빠지난 경 현 거주게. 자빠지난. 그 귀신이 여즈 귀신이. 그디 오난 집이 다  
왓다곤 헨 좇아가도 이젠 들어가지 못 혈로구나 헨. 옛기차 허멍 등경 밀려분  
생이라. 아메도. 아 게난 듯날은 아니 갈 수 엇고. 듯날은 걸어왓안 새벽이 가  
난 아 이 얼굴에 그냥 아싯날 번쩍헷던 얼굴이 그냥 뱃겨지고 손에 영. 아이고  
어머니영 그디 식구덜안티 욱 들기가. 그놈이새끼 가지 말라 허난. (웃음).

[제보자2] 난 경 허난 경 헷수게. 애기 돌안 뉘단에 이 어른 피가 찰찰 났이난

“무사 영 얼굴에 피났우과?”

허난

“어떤 예펜이 그냥 오는 디 밀련엔 박아져비엇어.”

하도 부에난,

“어디서 경 헷수과?”

유희 어멍네 집 올레에 잇일 거엔. 아니 아기 안앙 뉘단 막 좇으레 덩겻주게.

[제보자1] 자전거 꾹영 오지 못헷주게.

[제보자2] 기냥 막 좇으레 덩기지 안 헷수과. 유희 어멍 집 안네도 영 뵈. 그 동네 다 뵈  
느려왓어. 이디. 내려완 이디도 그냥 영 돌안 집이 간.

“암만 찾아도 엇언게.”

허난

“거 헷게 닐아.”

아이고, 나가이.

[청중] 겁난.

[제보자2] 헷게렌 허난 무서완이.

[조사자] 거문 어르신 이거는 죽은 도체비, 아까 그 멜 거리는 원에서 한 이야기는 건 산  
도체비?

[제보자1] 산 도체비.

[조사자] 여긴 헷게비렌도 해마씨? 헷, 아까.

[제보자1] 우리말론 헷게비, 헷게비 허주게. 도깨비엔 허고 헷게비엔 허고.

- 핵심어 : 헷게비, 여자 귀신, 핏내, 자전거, 도깨비, 도체비, 신촌리, 삼양동